

**2026. 1. 21.(수) 조간용**  
 이 보도자료는 2026년 1월 개요  
 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<b>담당 부서:</b> 정원도시국 조경과	조경과장	온수진	02-2133-2100 010-8566-5568
	정원기획팀장	차윤정	02-2133-2109 010-4717-9636
<b>사진 없음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<b>사진 있음</b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span style="margin-left: 50px;"><b>쪽수: 4쪽</b></span>	관련 누리집	festival.seoul.go.kr/garden	

###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, 최대, 최장 정원축제로 2026년을 달린다

- D-100일,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감각적이고 리듬감있는 공식포스터 공개
- 2026년 5월 1일, 서울숲을 메인으로 성수동 일대까지 확장된 정원문화...정원도시의 새로운 지평 확대
- 2026년 서울숲 박람회 국내외 관람객 목표 수는 1,500만명, 글로벌 정원도시로 성장하는 한 해될 것
- 내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 및 SNS 홍보 이벤트 강화...기대감 고취

- 서울시는 2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D-100일을 맞아 최대 규모, 최장 기간 행사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
- (규모) 2026년 정원박람회는 ‘Seoul, Green Culture’를 주제로 총 71만㎡의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로 펼쳐진다. 2024년 뚝섬한강공원 20㎡, 2025년 보라매 공원 40만㎡에 비해 1.75배나 늘어난 규모다.

<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면적>

합계	서울숲	성수동 일대 (선형가든)	매현시민의숲	뚝섬한강정원 (리버뷰가든)
71만 ㎡	48만 ㎡	3만 ㎡	18만 ㎡	2만 ㎡

- (기간) 지난 보라매공원 165일에서 15일 늘어난 180일로 최장기간 행사로 개최된다.

○ (정원수) 조성되는 정원도 작년 111개 정원에서 150개 정원으로 규모를 늘리고, 기부를 통해 정원을 만드는 기업·기관정원도 올해 30개소 48억원 규모에서 50개소 80억원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다.

※ (26.1.현재) 참여확정기업은 SM(엔터), 농심(푸드), 무신사(패션), 클리오(뷰티), 영풍문고(책) 등 K-컬처 선도기업을 포함하여 45개 기업이 정원조성 참여 예정이다.

□ 2026년은 텐밀리언셀러 축제로 거듭난 보라매공원을 뛰어넘는 관객수 1,500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, 이번 박람회로 서울의 관광 산업과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○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(보라매공원)는 총관람객 수 1,044만명, 공원 도보 20분 거리의 상권활성화 효과(카드매출) 219% 증대를 기록하였다.

□ 2026.1.21.(수) 박람회 개막 D-100을 맞아 국제정원박람회의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였으며, 올해 포스터는 서울색(모닝옐로우)과 박람회의 메인키컬러(2026 SIGS-SKYBLUE)를 조합하고 도시문화와 연결된 정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을 보여준다.

○ 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 포스터는 2025년 구축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브랜드의 인지성과 정체성을 강화하였으며,

○ 특히 올해 포스터는 개최 대상지인 성수동 일대가 지닌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도시 분위기와 수변과 생태로 이어지는 위치적 특성에 집중하여 정원 문화적인 맥락을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
- 2026년 박람회와 지난 박람회와 가장 차별·특성화 되는 점은 서울숲을 메인 박람회 공간으로 활용하면서, 감성과 트렌드가 공존하는 성수동 일대까지 박람회를 확장하여 도시문화와 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 한 것이다. 이는 서울 도시의 브랜딩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  - 서울숲에서는 K-컬처 콘텐츠 기반의 예술 정원들이,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정원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.
  - 또한, 한양대역-성수역-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선형정원을 통해 서울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으며, 고가철도 하부와 어두운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새로운 정원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 
- 또한 금년 박람회는 서울시 주관의 각종 행사와 전시를 서울숲에서 개최 하고 성수동 기반 로컬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하여 박람회 기간 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 내용으로 국내·외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.
  - (지역행사) 크리에이티브x성수, 서울숲 재즈페스티벌, 서울숲 힙합페스티벌 등
  - (기업·기관) 월별 책축제(영풍문고), 승마체험(한국마사회) 등
  - (실·국 행사) 조각도시서울·야외도서관(문화본부), 스프링페스타(관광체육국), K-뷰티 체험(경제실), 서울스태이지 공연(서울문화재단) 등
  
- 또한 정원문화 도슨트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투어 개발로 보다 깊이 있는 정원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며, 기존의 학술행사는 연 1회 행사에서 기간 내 6회로 커리큘럼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- 서울시는 내달, 행사 인지도 확대 및 기대감 고취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SNS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, 특히 기존 서울숲의 아티스트 정원을 기반으로 K-pop 팬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‘K-숨은 정원 찾기’, ‘서울숲을 함께 걷고 싶은 사람’, ‘일상속 정원찾기’ SNS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
  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올해 정원박람회는 도시문화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할 것”이라며, “2026년 박람회를 통해 서울의 문화자원이 글로벌 도시경쟁력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2026 국제정원박람회 전체계획도 1부.

2.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공식포스터 1부. 끝.



